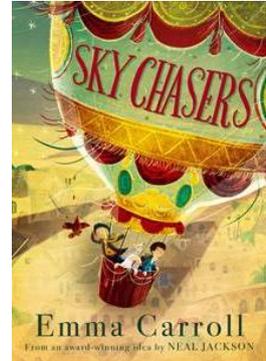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KY CHASERS
가제 : 하늘 풍선에 탄 아이들
저자 : Emma Carroll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8년 1월 4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출판사 치킨하우스가 개최한 ‘빅 아이디어 대회’ 우승작,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
- * 세계 최초로 공중에 사람을 띄운 프랑스 몽골피에 형제의 열기구에서 모티브를 얻은 흥미진진한 모험과 도전 이야기

최초로 하늘을 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가 ‘라이트 형제’를 떠올린다. 사람이 맨 처음으로 공중에 떠오른 유인 비행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6년 전인 1783년, 파리 서쪽의 어느 숲 속에서 하늘로 동실동실 올라간 열기구였다. 호기심이 많았던 한 남성이 빨래를 빨리 마르게 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그 열기에 옷 주머니가 부풀어올라 공중에 붕 떠오르는 것을 보고 똑똑한 동생과 의논하여 열기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유명한 몽골피에 형제의 열기구는 이렇게 탄생했다. 작가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흥미진진한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세상에 아무도 기댈 사람 없이 거칠게 살아가던 소녀가 우연히 하늘에 떠오른 일을 계기로 새로운 우정과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완성했다. 지나가다 위험해 보이는 소녀를 도와주려 달렸던 일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어지고, 그렇게 만난 소매치기 소녀 맥피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 피에르 몽골피에, 그리고 두 아이들이 키우는 별난 동물들의 기상천외한 모험이 이어진다.

맥피는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상황에서 피에르와 처음 마주쳤다. 파리 곳곳에 어둠이 내려 앉은 밤이면 ‘의뢰인’들이 부탁한 물건을 빼오는 좀도둑으로 거리를 전전하며 살던 맥피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델라크루와라는 부인이 찾아왔다. 이 근방에서 제일가는 소매치기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맥피를 한껏 치켜세우더니, 부인은 어느 집의 다락방에 몰래 들어가서 상자 하나만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일에 이끌린 맥피는 언뜻 듣기에도 쉽지 않은 일 같아서 단번에 거절했지만, 부인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금화를 무려 다섯 개나 내밀면서, 원래 자기 것인데 빼앗겼다고 울먹이며 제발 부탁한다고 사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돈을 보고 깜짝 놀란 맥피는 결국 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로 하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간다. 하지만 밤 늦은 시각에도 불이 환하게 새어 나오는 창문을 보며 조짐이 안 좋다고 느끼던 찰나, 그 집에서 귀엽게 생긴 사내아이가 웬 오리를 한 마리 데리고 나왔다. 근처에 얼른 숨어 조용히 지켜보던 맥피는 그 남자아이가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살금살금 집 안에 들어간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음성엔 조심스레 귀를 기울이며 마침내 찾은 다락방에는 델라크루와 부인이 말한 그 빨간 상자가 잠긴 채 놓여 있었다. 바지 주머니에 넣기엔 너무 큰 상자라 하는 수 없이 옆구리에 끼고 나오려던 그때, 방에 들어오던 소년과 마주친 것이다! 맥피는 번개처럼 도망가려고 했지만 소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재빠랐다. 맥피가 들고 있던 상자 한쪽을 붙잡고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힘도 엄청났다. 실랑이 끝에 잠겨 있던 부분이 뜯어져 안에 담겨 있던 종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자, 맥피는 정신 없이 그 중에 몇 장을 움켜쥐고 부리나케 달아났다. 웬지 착하게 생긴 소년과 푸근함이 가득하던 집 안을 떠올리자 괜한 사람들을 괴롭힌 것 같다는 자책감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아니나다를까 다음날 만난 델라크루와 부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일을 의뢰할 때 울먹이던 표정은 다 어디 가고, 맥피가 가져온 종이를 게걸스럽게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상자를 온전하게 가져오지 못했다며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일을 똑바로 못했다면서 오히려 비난을 퍼부었다. 그런데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에 터덜터덜 걷던 맥피의 눈 앞에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천막이 들판 저 앞에서 바람에 날려 가는데, 그 뒤를 웬 소년이 미친 듯이 쫓아가고 몸집 좋은 아저씨는 더 달리지도 못한 채 “얼른 붙잡아!”라는 소리만 외치고 있었다.

소년은 그 천막에 달려 있던 밧줄을 겨우 붙잡았지만, 때마침 불어 닥친 바람에 더 끌어내리지를 못하고 밧줄을 쥔 채 천막에 계속 끌려 갔다. 신기해서 멍 하니 구경하던 맥피를 본 아저씨는 얼른 가서 좀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서둘러 달려간 맥피는 가까이 가서야 그 소년의 얼굴이 낯익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간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마주쳤던, 그 남자아이였다.

당황할 틈도 없이 일단 이 일부터 해결하자는 생각에 천막에 달려 있던 또 다른 밧줄을 붙잡은 맥피는 있는 힘껏 아래로 끌어당기는데, 바람은 점점더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밧줄을 쥔 맥피는 거대한 천과 함께 하늘로 동실 떠올랐다. 나무들이 위가 아닌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맥피는 바닥에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몽골피에 부자의 중요한 실험에 어쩌다 참여하게 된 맥피는 그때부터 피에르라는 소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열기구로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까지 함께 한다. 피에르의 가족들은 실험과 도전을 끝없이 이어가고, 그 열정에 함께 심취한 맥피는 혼자 키우던 수탉, 피에르의 애완동물인 오리도 모두 함께 국왕과 왕비 앞에서 하늘을 나는 위대한 도전의 귀중한 일원이 된다. 과연 열기구는 무사히 떠오를 수 있을까?

<저자 소개>

엠마 캐롤(Emma Carroll)은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다가 전업 작가로 전향했다. 바스스파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Frost Hollow Hall』, 『The Girl Who Walked On Air』, 『In Darkling Wood』 등을 발표하여 이름을 알렸다.

제목 : NOT IF I SAVE YOU FIRST

가제 : 누가 먼저 구해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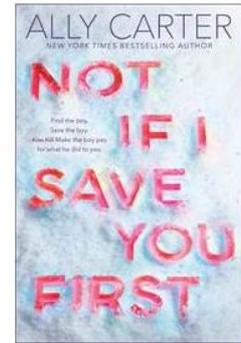
저자 : Ally Carter

출판사: Scholastic Press

발행일: 2018년 3월 2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Gallagher Girls」의 작가가 선보이는 신작

* “앨리 카터는 마음을 잡아 끄는 스릴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작가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안전벨트 때문에 기껏 차려 입은 실크 드레스가 구겨지는 일이 너무 신경 쓰이고, 핑그르르 돌면 예쁘게 펼쳐지는 드레스 자락을 보면 환호성을 치던 삶이 헤어핀을 머리에 꽂는 대신 낚시 바늘로 사용하고 매니큐어 지우려고 산 아세톤으로 불을 붙이는 정글 같은 삶으로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심지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빠가 대통령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인생이 썩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사는 곳이 워싱턴에서 알래스카로 확 바뀌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선택은커녕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매디는 6년째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장작을 떼서 난방을 해야 하는 알래스카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 휴대전화, 인터넷이 없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짧은 인생에서 가장 가까워진 친구와 어떤 경로로도 연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 그 소중한 친구는 바로 바로 아빠가 보호하던 대상, 대통령의 아들 로건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에서 대통령의 바로 곁을 지키는 요원으로 근무했던 매디의 아빠 덕에,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 채 헤어져야만 하는 일이 벌어질 줄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그 파티가 열린 날 매디는 예쁘게 차려 입고 백악관으로 향했다. 엄밀히 말하면 아빠 덕이라기보다 친구를 초대해도 된다는 말에 바로 매디를 떠올린 로건 덕분에 성사된 일이었다. 아빠의 후배 경호요원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 백악관 정문을 정식으로 통과해 파티장으로 향하는 길 내내 매디의 머릿속에는 로건과 꼭 춤을 춰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미 소란스러워진 공식 행사장 근처에서 내내 매디만 기다리던 로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화장실 고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퍼스트레이디, 엄마와 달리 로건은 러시아 정치계 주요 인물들이 초대됐다는 이런 파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저 매디가 오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저녁시간이 확 바뀌게 되리란 기대뿐이었다. 마침내 평소와 같은 왈가닥 차림은 온데간데 없이 숙녀처럼 차려 입은 매디가 도착하고, 로건이 달려가 인사를 나누는 사이 상원의원과 함께 사냥을 떠났던 로건의 아버지, 대통령과 매디의 아빠가 동시에 헬기로 도착했다. 이제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각은 45분 남짓, 들뜬 분위기 속에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간 그 시각에 가장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매디는 로건과 둘이 남아 조용한 복도에서 이야기를 할 때부터,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어딘가 수상했다. 식당 쪽으로 바쁘게 오가는 백악관 직원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던 두 청년은 로건과 자신의 또래처럼 아직 청소년을 벗어나지 못한 나이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능수능란한 군인 같은 인상도 풍겼다. 그리고 매디의 직감은 사냥에서 돌아온 아빠가 막 턱시도로 갈아입고 내려온 그 순간, 정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악관 전체에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울리자 파티 준비를 하는 직원처럼 보였던 그 두 청년이 주머니에서 총을 빼 들고 쏘기 시작한 것이다.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매디의 아빠는 대통령을 지켜낸 대신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가족이라곤 아빠밖에 없었던 매디에게 로건과 그의 부모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 그들의 아이이기 이전에 가족처럼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모두 매디를 딸처럼 귀여워해주었고, 아들 로건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 매디를 아껴주었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 충격적인 충격 사건이 벌어진 후 매디의 아빠는 그곳을 완전히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나뿐인 딸을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곳과 가까운 곳에 둘 수 없다고 결심한 아빠가 택한 곳은 워싱턴은 물론 매디의 기준에서는 문명 세계와도 완전히 떨어진 얼음 왕국, 알래스카였다. 무엇보다 최악인건 매디가 매일 일기처럼 로건에게 쓴 편지가 정말 백악관으로 향하고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쩌면 로건이 써서 보냈을지 모를 편지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아빠는 대체 왜 알래스카에서, 따뜻한 물에 목욕 한 번 제대로 하기도 힘든 이런 곳에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1년 내내 묻고 또 묻다가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는 매디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매디의 눈앞에 난데없이 로건이 나타났다.

각자 떨어진 곳에서 너무나 다른 삶을 보낸 두 사람은 알래스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또 다시 위기에 처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로건을 대형 인질로 붙든 러시아인 일당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가운데, 매디는 그 동안 어쩔 수 없이 익힌 ‘야생환경에서 살아남기’ 기술을 모조리 동원하여 로건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마음 같아서는 그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로건을 그 악당들보다 먼저 손보고 싶었지만, 일단 목숨부터 구해준 다음 생각해야 한다. 알래스카의 환경에 익숙해진 매디에게도 견디기 힘든 혹독한 추위와 끝없이 펼쳐진 험난한 지형을 헤치며 두 사람은 집요하게 쫓아오는 적들을 피해 달아난다. 매디의 아빠는,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두 사람이 처한 위기를 언제쯤 알게 될까? 그 흔한 휴대전화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허허벌판 얼음 숲 속에서 매디와 로건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이미 서로에게 큰 상처로 남은 과거의 기억도 극복할 수 있을까? 부모님 때문에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된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광활한 알래스카를 무대로 펼쳐진다.

<저자 소개>

엘리 카터(Ally Carter)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Gallagher Girls』과 『Heist Society』 시리즈 등을 썼다. 발표한 작품들은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됐다.